

## 광주·전남기업 “빛 덜었지만 벌이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은 재무구조 개선된 반면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올해 기업경영 개선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각각 9.6%, 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보다 각각 0.9%p, 1.6%p 하락한 수준으로 원자재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

### 원자재·유가 상승에 영업이익 줄어 수익 악화 자본비용↑ 부채비율↓... 재무구조 크게 개선

비의 비중이 90.4%로 높아진 것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과 기계·장비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21.7%, 1.0%로 소폭 개선됐을 뿐 나머지 부문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금속광물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7.9%에서 2005년 5.2%로 2.7%p 하락한 것을 비롯 ▲자동차 1.1% ▲음식료품 4.5% ▲석유정제 5.2% ▲고무·플라스틱 9.5% 등으로 전 업

종에 걸쳐 하락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건설업과 도·소매업 매출액 증가는 각각 0.3%, -4.3%에 그쳐 2004년 21.8%, 4.1%에 비해 크게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반면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는 2004년보다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광주·전남 업체들의 부채비율은 85.4%로 2004년 96.3%보다 10.9%p 낮아졌으며, 차입금 의존도도 20.3%로 2.4%p 하락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재무구조 주요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2004(A)	2005(B)	B-A
제조업	10.5	9.6	-0.9
대기업	11.6	10.7	-0.9
중소기업	6.0	4.9	-1.1
수출기업	6.8	6.3	-0.5
내수기업	12.4	11.3	-1.1

	매출액 경상이익률		
	2004(A)	2005(B)	B-A
제조업	11.6	10.0	-1.6
대기업	13.1	11.3	-1.8
중소기업	5.4	4.4	-1.0
수출기업	8.9	7.9	-1.0
내수기업	13.0	11.1	-1.9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재무구조가 오히려 탄탄해지는 등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이들 업체의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이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점에서는 올해 기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말했다.

## 中振公 전남 동·서부시대 목포·순천에 지부 개소

### 지역경제 활성화 한몫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2일 전남 서부지부(목포)와 동부지부(순천)를 개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진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시간이 소요되는 광주시 지역본부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이번엔 2개의 지부가 개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부는 자금지원사업(구조개선, 중소기업창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협동화, 수출금융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구조고도화사업, 연수사업, 벤처기업평가업무, 국제협력사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이업종교류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게 된다.  
서부지부(지부장 임순택) 연락처는 (061)287-7755~6, 동부지부(지부장 조내권) 연락처는 (061) 724-1066~7.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美 경기 내리막...한국 수출 적신호

미국 경기가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잇따르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엔진마저 꺼지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2일 ‘미국 경제성장 둔화로 내년 수출 여건 악화 우려’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둔화함에 따라 중국, 일본 및 유로 지역 등의 성장률 역시 내년부터 낮아질 것”이라며 “주요 수출 시장의 성장 둔화로 내년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올해보다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투자은행, 연구소 및 대학 등 주요 분석기관들은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잡는 추세다.  
특히 메릴린치, UBS 등 일부 세계적 투자은행은 주택경기 둔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년 미국의 성장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미국 성장률은 3.5%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리세션(경기후퇴: recession)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뉴욕 대학의 로우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최근 미국의 내년 리세션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졌다고 밝혔고, 메릴린치 역시 앞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5.5%까지 높일 경우 내년 리세션 확률은 50%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 향방’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가 지난 1·4분기 정점을 찍고 2·4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진입, 현재 ‘완만한 하강’과 ‘급락’의 갈림길에서 있다고 밝혔다.

##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 추진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요금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현재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일 방침이고 산업자원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0kWh 이상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단계별로 누진율이 너무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단계의 누진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100kWh까지의 최저단계 요금에 대해서도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다만 최저단계 요금 이용자들이 국민총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 이색 디자인 가방 다모였네

22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버스, 비행기, 전화기 등 이색 디자인의 가방을 신기해 눈 보고 있다. 이 가방은 모두 수직업으로 제작, 같은 디자인의 키홀더도 함께 출시했다. /연합뉴스

### 미래에 뜨는 직업 살펴보니...

미래에는 IT(정보기술)와 첨단분야, 웰빙, 창의성과 개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의 직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전선원은 22일 ‘IT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고용 기상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 및 지식 집약화를 통해 직접 지식을 창출하거나 이를 가공해 유통시키는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래사회의 핵심으로 ‘지식창조자’와 ‘지식 응용자’를 지목하고 미래에는 지식과 정보, 창의성이 결합된 큰 부가가치를 내는 부문이 유망직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웰빙·실버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하락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황사나 광우병 등과 같은 환경재해에 대한 공포와 함께 친건강, 친환경을 지향하는 웰빙개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미래에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노동부터 일반사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직업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간은 기술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애니메이션·게임·오락 등 문화부문의 직업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

## ‘명품신도시’ 수완지구 공동모텔하우스 오픈

### 이달 31일...GS건설 등 7,540세대 동시분양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 수완지구 가 오는 31일 통합모텔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7천540세대에 대한 동시분양에 들어간다.  
22일 수완지구 참여건설사 협의회에 따르면 11개 업체의 1차분 동시분양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합모텔하우스 건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모텔하우스 운영에는 대주건설을 비롯 ▲래방건설 ▲모아주택산업 ▲새한건설 ▲신한건설 ▲영원건설 ▲한양 ▲GS건설 등 8개사가 참여해 성공분양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현진에비빌과 코오롱건설, 진흥기업 등은 개별 모텔하우스를 운영한다.  
광산구 흑석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통합모텔하우스의 총면적은 1만5천여평에 달하며, 1개사당 600~1천500평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특히 통합모텔하우스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윈-윈 효과’가 높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급자는 통합모텔하우스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요자들은 짧은 시간에 분양가·평면·입지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집세대수는 총 7천540가구로 30평형대에 70평형대에 이르기까지 중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30평형대가 평당 550만원, 40평형대 평당 650만원, 50평형대 이상은 7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4일 특별공급청약을 시작으로 5, 6월에는 1~3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7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수완지구는 사업규모 140만평의 22.7%인 32만여평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만큼 ‘녹색단지’로 조성된다. 또 풍형정신을 따라 4.7km구간에 천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14개의 근린공원과 22개의 어린이공원 등이 들어선다.  
수완지구는 무진로를 이용해 도심 및 서구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승용차로 5분거리에서 호남고속도로 산남IC가 위치해 있으며 2007년에는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양제철소 TWB공장 준공

### 고부가가치 자동차강판 가공설비 생산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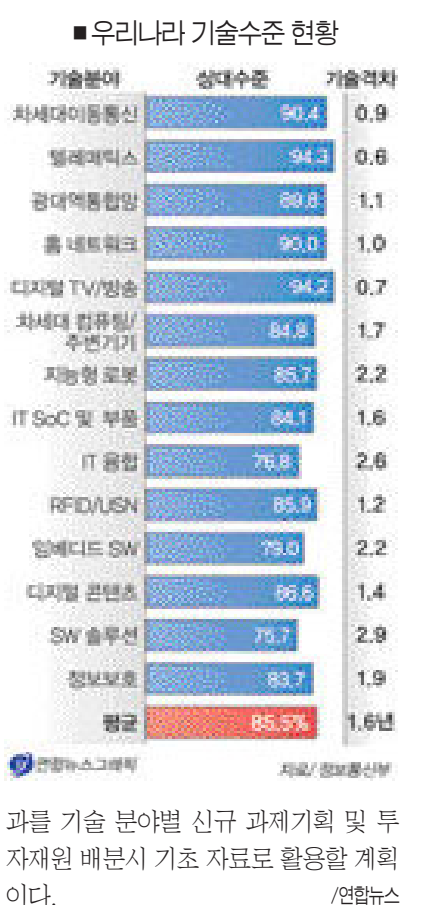
포스코는 23일 광양제철소에 고부가가치 자동차강판 가공설비인 TWB (Tailor Welded Blanks·맞춤재단 용접강판)공장을 준공, 준공했다.  
TWB는 두께·강도·재질이 다른 강판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한 후 레이저로 용접, 원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자동차용 강판을 말한다.  
이번 공장준공으로 선형·비선형·복합형강 등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

종부대설비를 포함, 절단(Blanking)라인 2대와 용접(Laser Welding)라인 7대가 설치돼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TWB를 사용하면 자동차 전체 무게가 10%가량 감소해 경량화에 의한 연비절감과 차체 안정성이 개선된다”면서 “자동차사의 공정단축과 원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광양제철소는 9호 기력발전기를 증설하고 23일 준공식을 갖는다. 9호 발전설비는 고로 용선증대로 발생되는 잉여 부생가스를 발전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300억원의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글로벌 범용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완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 /이종태기자 jitee@r

## 한국 IT, 美 바짝 추격

### 차세대 통신 기술격차 1년미만 지능형 로봇 등은 2년이상 차이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IT 기술수준 조사 결과 IT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 수준이 2003년도 대비 1년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IT 신성장동력 분야 가운데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방송, 텔레매틱스 등은 세계 최고 기술 선진국인 미국 대비 상대 수준이 90% 이상이고 기술격차가 1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부가 2004년부터 신성장 동력 기술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과 같은 세계최고의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능형로봇(4.0년→2.2년), 소프트웨어 솔루션(3.0년→2.2년) 분야는 2003년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됐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 이상으로 조사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IT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격차는 2003년 1.6년에서 2006년 0.6년으로 1년 단축됐고 EU(2003년 조사 미 실시)와의 기술격차는 0.7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3년 2.6년이던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1.7년으로 줄어든 중국의 기술 경쟁력 제고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는 IT분야 산·학·연 전문가 500명이 참여했으며 IT분야 총 506개 세부기술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의 기술수준을 조사해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정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과를 기술 분야별 신규 과제기회 및 투자자원 배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